



야 한다.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된다.

기도하는 자

금토일의 목표는 이삭처럼 만드는 거다. 그런데 램넛트는 사실상 기도가 뭔지 모른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해야 한다. 금토일 시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어른들이 먼저 마음에 품어야 한다. 기도를 누리려면 기도 아는 자라야 한다.

(보좌-나라, 일) 매일, 매시, 매사 / 24, 25, 00

기도할 때 굉장한 보좌, 하나님 나라,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매일, 매시, 매사 하는 거다. 우리에게 힘든 일, 좋은 일이 생길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매사다. 그러면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세계가 보인다. 그것을 24라고 한다. 그러면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25가 보이고,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온다. 이것이 기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아이들이 이 체험을 하도록 안내해 줘야 한다. 주로 함축하면 메시지 듣고 난 뒤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복음하는 자 - 축복(계획)

아이들은 별거 아닌 것에 상처 입고, 또 상처가 많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말 안 하는 것도 많다. 그것을 물어두면 상처가 되고, 참으면 병이 된다. 그냥 대충대충 하면 포장이 된다. 그러면 진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야 된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다.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은 빨리 판단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평생의 인생 영화를 찍고 있는 거다. 모든 곳에서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당장 집에 가서 못 이기고, 학교에서는 더 못 이긴다. 사회에 나가면 어렵고, 세계복음화할 시간이 없다. 그런 여유가 없다.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실제 기도의 힘입어 나이 들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야 한다.

전도하는 자 - 3캠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로 움직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데리고 열매 맺게 되어 있다. 이것을 3캠프라고 한다. 이것을 전도하는 자라고 한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한다.

창세기 26:10-24

- 10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 11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 12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 13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 14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 15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 16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 17 이삭이 그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 18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뺏던 우물들을 다시 뺏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 19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 20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

- 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 21 또 다른 우물을 뺏더니 그들이 또 다투므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 22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뺏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고 하였더라
- 23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 24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요약

오늘은 금토일 시대 69번째다. 이걸 놓고 이삭의 망대를 보겠다. 우리 주제가 망대다. 그것을 지금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실제 교회가 잘 안되면 RUTC를 빌려서라도 금토일 모임을 해서 실제 아침에 어떤 기도를 하는지, 낮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밤에는 어떻게 조용하게 누림을 하고 공부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 날씨가 좋을 때는 교회에서 텐트 치고 기도하는 모임 가지게 만들어 줘

▣ 본문

이삭은 이 세 가지를 다 했다.

1. 창 22:1-21(각인, 기도, 증거)

복음으로 확실히 각인되고, 확실한 기도를 누리게 되었다. 확실한 복음의 증거를 잡게 되었다. 복음과 기도, 전도가 삶에 나타난 거다.

1) 죽음 - 언약

죽음이라는 현장에서 언약을 보았다. 왜 죽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그게 원죄다.

2) 구원 -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다. 그것을 또 언약으로 본 거다.

3) 증인 - 세계

세계 살릴 증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주셨다.

2. 창 26:10-24 (현장)

이 세 가지를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이 되었다. 우리는 이 복음과 기도를 또 현장에서 놓친다.

1) 아브라함

아버지가 찢던 우물을 다 회복했다.

2) 샘 근원

적들이 와서 방해했지만 상관없었다. 샘 근원을 얻었다.

3) 르호봇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다. 문제 될 게 없다.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기준이 있다.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 빨리 아이들을 바꿔주어야 한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께서 너를 인도하시어. 성령께서 네 미래까지 책임져.” 이것을 알려줘야 한다.

3. 후대 복음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후대 복음화 일어나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1) 야곱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2) 요셉

야곱에게 요셉이란 인물이 나온다.

3) 모세

그 뒤에 모세라는 인물이 또 나온다.

이들이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한 거다. 애굽에 가서 237-5000종족 살리는 일이 일어났다.

▣ 결론_ 24(25, 00)

진짜 24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면 25, 00은 따라 나오게 돼 있다.

한 가지(모든 것)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거 다 나와버려야 한다. 음악인은 음악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 화가는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 그 리스도 알았는데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이 크리스찬이다. 장로들은 기름 부음받은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다라야 한다. 그러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오직 (300%)

오직을 발견했는데 300%가 따라온다.

우리 종직자, 산업인들은 깊이 기도하셔야 된다. 금토일 시대에 미국과 유럽은 마약 시대, 타락 시대로 바뀔 것이다. 우리는 금토일에 모든 것을 회복해야 한다.

녹취

- 금토일 시대 망대 69 -

오늘이 우리 금토일 시대 망대 69번째입니다.

「이삭의 망대」

그걸 놓고 이걸 이삭의 망대를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6월이 접어들었기 때문에 메시지 흐름이, 우리 주제가 망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계속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안 되면 RUTC 빌려서라도요, 금토일 모임을 해서 실제 아침에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낮에는 쉽게 말하면 이제 눈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만남도 하나의 눈이기 때문에 낮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실제 가르쳐줘야 돼요. 결국은 밤에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용하게 이렇게 누림을 하고 공부하는가, 이것을 실제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 부산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날씨 좋을 때는 텐트 치고 자기들이 와서 기도하고 모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줘라. 우리 RUTC 같은 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런 천막 같은 거를 그냥 돈 받지 말고 빌려줘라. 한 번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기도 아는 자 (보좌 - 나라, 일) 매일 매시 매사 / 24 25 00】

그래서 목표가 뭐니까? 금토일 시대를 하는 목표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삭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뭘 해야 됩니까? 거의 우리 램넛트들은 사실상 기도가 뭔지 모릅니다. 자, 그러려면 그 애들이 무슨 큰 체험을 해야 기도를 배운다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거지요. 제일 좋은 거는 삶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아, 금토일 시대 이게 중요하다.’ 하는 걸 먼저 산업인들, 중직자들, 어른들이 마음에 품어야 아이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잘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누리려고 하면 기도 아는 자라야 됩니다. 기도할 때 굉장한 보좌, 하나님의 나라,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또, 지금 뭐 하는 시간이지요? 매시 누리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지요? 매사. 그러면 기도 속에서 공부하게 돼요. 이러면 된 겁니다. 램넛트들이 기도의 비밀 가지고 공부를 한다, 이거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세계가 보여요. 그 외에는 절대 아닙니다. 그걸 보고 24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만 기다리고만 있어도 보입니다. 25. 그러면 영원이라는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 아는 겁니다. 만들어줘야 되지요.

처음에는 그냥 모여서 너는 오늘 이렇게 이렇게 해라, 안내를 해 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보면 합숙하면 메시지 듣고, 또 무슨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실제 애들이 혼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이거 진짜 장난 아니고요, 지나가는 얘기 아닙니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램넛트 7명들이 갈 때는 답을 가지고 갔다니니까요. 가서 힘을 얻은 게 아니고 힘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누리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 표 납니다, 금방 표 나.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약간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등산을 한다, 산에 갔다 오면 좋지요. 그러면요, 자고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은 조금 미안한 말로는 좀 짐승 비슷하게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이걸 진짜 누리고 있으면요, 압니다. 메시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게 달라요. 웹툰트가 다릅니다. 장로님들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애타게 얘기한 거라니까요.

[복음 아는 자 - 축복(계획)]

그러면서 진짜 아이들하고 대화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은 별 거 아닌 거에 상처 입고요, 또 상처 많고, 부모님에게 말 안 하는 것도 많아요. 그거를 물어두면 상처가 돼요. 참으면 병 돼요. 그렇지요? 그냥 막 대충대충 이렇게 하면 또 포장이 돼요, 포장.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보고 복음 누리는 자 이전에 복음 아는 자입니다. 복음은 복음을 알아야 누리지.

그래서 어지간하면 복음 아는 사람, 기도 아는 사람들은 빨리 판단 안 하잖아요. 뭘 사진 냐다, 빨리 판단 못합니다. 그렇지요? 그럼 계산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이들도 그렇고 평생에 내가 인생에 대한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주역이다 이거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복음 아는 자는 모든 곳에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 발견합니다. 이렇게 안 되면 당장 집에 가서 못 이깁니다. 학교 가지요? 더 못 이깁니다. 재들이 그래 가지고 사회 나간다? 어렵습니다. 세계복음화 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 내게 그런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 특히. 여러분 그래가 나이 들어 버렸거든요. 실제 기도의 힘도 없이 나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겁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축복을 주신 거를 누리야지 그걸 놓치면 안 되지요.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것(복음 아는 자 - 축복(계획))만 안 합니다. 오만 때만 걱정 다 하면서 이것(복음 아는 자 - 축복(계획))만 안 해요. 오만 말, 남의 말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면서 이것(복음 아는 자 - 축복(계획))만 안 해. 도대체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그게?

[전도 아는 자 - 3캠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로 움직입니다. 왜냐, 성령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성령께서

는 우리를 데리고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3캠프라고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전도 아는 자예요. 전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알아야지.

잘 이렇게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일에 이번에 우리 그 음악팀 갔다 온 거 보고한다는데, 그냥 보지 말고 어떻게 기획되어 가는가를 보세요. 이미 우리 멤버들은 메시지 준비돼 있어요. 그렇지요? 현장을 못 봤단 말이에요. 현장을 보러 보낸 거예요. 현장이라는 건 갔다 오는 게 현장이 아닙니다. 현장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간 사람도 놀라고 참여한 사람도 다 놀라버린 거예요. 그대로 말씀 성취되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거를 금요일 시대에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거의 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도와줘도 되는데 못 도와주니까 애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1. 창 22:1-21(각인, 기도, 증거)

첫째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복음으로 확실히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죽다 살았는데 뭐. 이걸 가지고요 확실한 기도.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확실한 복음의 증거 붙잡게 됐어요. 결국 이게 지금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세 가지가 삶에 딱 나타난 거지요.

1) 죽음 - 언약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언약을 봤다니까요. 죽게 됐잖아요. 왜 죽게 되느냐? 몰라요. 그게 사람이고, 그게 원죄입니다.

2) 구원 -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걸 또 언약으로 탁 본 겁니다.

3) 증인 - 세계

그리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세계 살릴 증인이라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주십니다.

2. 창 26:10-24(현장)

그러니 이 이삭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드디어 이 세 가지를 어디서 누리냐? 현장에서 누리는 복음이 돼 버려요. 우리는 이 복음을 이 기도를

또 현장에서 놓쳐버려요.

1) 아브라함

그래서 아버지께서 팠던 우물들을 다 회복했어요. 적이 와서 다 방해하고 묻었습니다.

2) 샘 근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샘 근원을 얻었어. 그렇지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는 전부 보편요, 멸망 교육입니다. 싸워 이겨야 돼. 그렇잖아요? 싸워 이겨야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게 멸망 교육이에요. 실제로 싸워 이겨서 도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대국이 남의 나라 많이 이겼는데 강대국 됐습니까? 그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바벨론,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이라크 아닙니까? 메대, 바사, 페르시아, 어마어마한 나라, 지금 어딥니까? 이란 아닙니까? 저것들 축구들 하면 꼬장 피워요. 인간성이 이상해요, 그냥. 저 중동 아이들 보세요, 우리하고 축구할 때 보면 한 골 넣었다, 그때부터 축구 안 차. 다 드러누워버려. 안 일어나. 인간성이 그렇다니까요. 싸워 이긴 적이 없습니다. 샘 근원을 얻어버렸는데. 또 공격하지. 왜냐, 할 짓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착각이지요.

3) 르호봇

르호봇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문제 될 게 없어요.

자꾸 우리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의 기준 있잖아요. 자꾸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 빨리 아이들을 바꿔줘야 됩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증거, 성령이 너와 함께해서. 성령이 네 안에 계셔. 성령이 너를 인도해서.” 그렇지요? “성령께서 네 미래까지 책임져.”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3. 후대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후대 복음화 일어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1) 야곱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2) 요셉

이 야곱에게는 요셉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3) 모세

그 뒤에 이어서 모세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완전히 세계복음화를 한 거예요. 사람이 상상도 못 해요. 어

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애굽에 가서 23, 5천 종족 살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 결론_24 (25, 00)

진짜 24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25, 00은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모든 것)

더 중요한 거, 우리 중직자 대회 때 많이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한 가지 속에서 모든 거 다 나와버려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를 알았더니 모든 것이 다 나와.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음약을 했는데 모든 것이 다 따라와. 그 사람이 음악인입니다. 아니,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모든 것이 다 회복돼. 그 사람이 화가입니다. 그리스도 알았는데 모든 게 다 따라와.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장로님들이 뭘 바꿔야 되는가 하나씩 기름 부음 받는 그날로부터 여러분들은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야 해. 혹시나 결혼은 두 번 할 수 있어도 기름 부음 받는 건 두 번 없어요. 한 번이에요. 그래서 뭐가 안 바뀌는가 하나씩, '아 기름 부음 받은 이게 다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모든 게 회복되고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거지.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부분이 다라야 해요. 그러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회복 안 되어도 해야 되지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꼭.

오직 (300%)

오직을 발견했는데 300% 따라온다니까요.

우리 중직자분들, 산업인들,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시대 왜 열어야 되느냐? 앞으로 금토일 시대는, 유럽과 미국은 금토일이 마약 시대입니다. 금토일이 타락 시대로 바뀔 겁니다. 우리는 금토일에 모든 걸 회복해야 됩니다. 꼭 이 축복을 중직자 산업인이 먼저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시대 살릴 산업인과 중직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길지어다. 아멘.

친필

